

“저 사람들은 왜 가난할까?”... “인문학 공부를 안해서죠!”

인문학은 자유다

얼 쇼리스 지음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인 얼 쇼리스는 빈곤 문제에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의 빈곤과 관련된 글을 쓰던 그는 빈곤의 해결책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 고민하던 중 1995년 뉴욕 베드퍼드힐스 교도소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재소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답했다. “시내 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Moral life)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문제는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한 그녀는 “아이들을 도심으로 데려가 연극, 박물관, 공연, 강연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거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정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게 인



문학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녀는 “맞다”고 답한다.

그는 이 만남을 계기로 뉴욕에서 노숙인, 마약중독자, 재소자 등 폭력, 굶주림,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를 개설한다. 역사, 문학, 예술, 논리학을 기본 틀 삼아 하버드나 예일 대학의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으로 커리큘럼을 짠다.

‘인문학 전도사’로 불리는 얼 쇼리스의 유작 ‘인문학은 자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과정 클레멘트 코스의 세계 수업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그는 빈약한 부익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

난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야한다는 신념으로 암투병 중에도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인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희망의 인문학 수업’이라는 부제처럼 책은 삶의 변방으로 밀려난 이들이 인문학을 통해 수동적 삶에서 성찰하는 삶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은 멕시코의 마야 마을, 오클라호마의 인디언족, 알래스카의 추피크족과 유키토족, 수단 다르푸르의 난민촌, 문제아들이 모인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문학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과정인 성프란시스코 대학이 문을 열었으며 2014년 현재 144명이 졸업했다. 아시아의 첫 클레멘트 코스인 서울의 사례를 담은 ‘안-녕-하-세-요’에서는 ‘가방 끈이 짧고 삶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

들에게 자기의 삶을 되묻고 대답하는 인문학 공부’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이 팽배하던 시절’(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한국에서 어떻게 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가 시작되는지 보여준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클레멘트 코스의 ‘성과’일 것이다. 1995년 클레멘트 코스에 참여한 여성 재소자 가운데 한명만 빼고 모두 출소했으며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에 진학해 치과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 이도 나왔고,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쇼리스는 이런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찰’과 ‘자유’의 획득이라고 말한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할 지표이기도 하다.

〈현암사·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와타나베 가즈코
‘오늘, 그 사랑이 보입니다’
(21세기 북스 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여기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과 이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얼마 전에 교황님이 다녀가셨다. 온 국민이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나타나셨다. 굳이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성직자의 본분인 온화함의 힘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수녀님의 마음 속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책은 차분하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청춘 멘토인 와타나베 수녀님의 행복해지는 시간 사 용법인데 일상과 단상을 명상집처럼 소개했다.

책장을 열면 목차부터 정겨워 눈에 띈다. 한 파트마다 ‘마음 돌 곳’이 필요할 때, 좋은 만남을 바랄 때, 늙음을 느낄 때, 삶이 힘들 때’라는 소재목을 붙여 아주 자연스럽게 풀었다.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먼저 마음의 버팀목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다. 버팀목을 찾아 주문을



새로 나온 책

▲난중일기=같은 제목의 책이 많지만 가장 오리지널 느낌이 살아있는 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기보다는 곁에 두고 틈틈이 펼쳐 보며 구절을 되새길 때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책은 일기 한 편 한 편마다 거기에 배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충혼을 느낄 수 있도록 편집했다. 진필초고와 마찬가지로 내려쓰기 편집에다가 충분히 긴 호흡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여백을 두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에 의미를 두고 책 가격을 결정했다.〈지식공작소·1만5920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고딕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플레너리 오키키의 대표작이 국내 독자들에게 본격 소개됐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던 20세기 초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정교도적 금욕으로 자신을 옹아맨 채 부자유스러운 욕망을 꿈꾸었던 미국 남부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그들의



참혹하고 우스꽝스러운 최후를 보여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문학수첩·1만3000원〉

▲처음 시작하는 철학공부=철학사상의 핵심과 흐름을 짚어 주는 가장 쉬운 철학 입문서.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이 시대 순으로 나열돼 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가다 보면 지금까지 철학이 어떻게 훌륭한 원리를 축적해 왔는지, 그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생각이 사람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가 또는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창출해 내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다. 〈컬처그라퍼·1만4000원〉

▲예코의 초상=등단 15년차를 맞는 김형욱의 시집. 시집은 제목에서 의미하듯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해야만 하는 ‘에코’의 운명을 시작 자아의 초상으로 받아들이는. 외부의 목소리가 되돌려서 나의 고통과, 생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화자는 타인의 불행은 나의 일로 겪어낸다. 끝내 가닿을 수 없는 타자의 경지, 오로지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의 경계에 서서 자책한다.

〈문학과 지성사·8000원〉

▲힘들 때 꺼내보는 아버지의 편지=인

생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뜨거운 삶을 살다간 아버지의 이야기. 펜타곤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군사고문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하던 저자는, 갑작스런 장갑 말기 판정을 받는다. 그래서 팬을 들었다. 아이들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의 편지를 보며 상담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이야기에겐 남자의 끝없는 도전, 지도자의 따뜻한 온정,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오토이 담겨 있다.

〈김영사·1만4800원〉

▲여성의 정치사상=여성의 눈으로 정치사상의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획이다. 여성정치사상의 근대적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은 18세기의 여권 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실천한 19세기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다. 책은 두 인물의 사상을 통해 여성의 존재를 소외시킨 근대정치사상의 부족함을 채우고 여성정치사상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세상·1만8000원〉

어린이 책

▲이 직업의 하루가 궁금해요=청소년 직업교육 멘토로 잘 알려진 저자 이량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 수 있을까를 고민해 그 해답을 책에 담아냈다. 직업인의 생동감 넘치는 하루는 상황을 유쾌하고 진솔하게 그려낸 일러스트와 만나 그 재미를 더한다. 〈더숲·1만6000원〉

▲열세 살, 학교 폭력 어떡하죠?=황



서들을 시키고,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휴대전화 채팅을 하고, 교실에서 들어가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 다양한

학교 폭력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방관하는 아이들을 위한 심리 에세이이다. 심리학을 전공한 작가가 학교 폭력의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 준다. 〈스콜라·1만1000원〉

▲역사가 보이는 별별 우리 떡=삼국시대 전까지는 쌀밥을 대체해 주식으로 이용됐던 떡을 통해 옛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가까이로 다가가 본다. 떡이 오늘날까지도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쓰이는 전통을 이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

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한울수북·9500원〉

▲구스범스 4=어린이의 불안을 공포로 표현한 ‘구스범스’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여름 캠프의 악몽’ 편에는 여름 캠프를 떠난 빌리에게 벌어진 위험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담았다. 연이어 계속되는 괴이한 사건들이 빌리의 숨통을 점점 죄어 오면서 짜릿한 긴장감과 공포감을 선사한다.

〈고릴라박스·8500원〉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타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옆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당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금호동 1층 임대(보충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LH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지택지 88평 매매가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무인월 적합지 생암동 1787㎡(540) 은행 7억2천 위치는 최고임 공시지가 14억 3천 상당원할 12억 6천
- 유동 병원, 사육 적합 대지 769㎡(240) 건물 ㎡(818) 15억
- 북구 병원, 요양시설 적합 대지1057㎡(320) 건평 1962평 34억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 공시지가 12억7천 시설완비 대출 10억선 매도 13억
- 계림동 준주거 대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감정 14억 5천 은행8억3천 매도 10억3천
- 유동로터리 인접 대지 235㎡(101) 건물 185평 공시지가 3억9천 매도 4억천
- 요양병원 땅 21000㎡(6370) 병원 2693㎡(816) 150병상, 신축할 병원은 400병상 허가있을 감정 42억선 대출 26억 자산 감정 53억선 매도 42억 직접 상담 원할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오피스텔 등 적합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15억

투자 / 매도 / 교환

- 광주역앞 소방도점 상업지 448㎡(135) 원룸, 생활주택 적합 평당 250만원 (3억3700)
- 생촌동 5.18공원건4-편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게와 안집 원룸 15개 5억 2천
- 생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대출1억5천 매도 6억4천

임대

- 생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매, 임대는 보충금 500 월 40선이나 임대조건은 조정 호텔급 시설, 사생활 보호에 완벽
- 미트, 생촌동 원룸밀집지역 146㎡(44)영업여건 좋음 보충금 5천 월 220, 시설비 약간있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수익형구분상가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월계동(첨단) 1층 85㎡ 3.5억(보5천 월150만)

상가 건물

- 치평동 6층건물 40억
- 품암동 3층건물 9.7억
- 품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 귀촌, 귀농용 전/답, 과수원 "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제이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